

# 지역 경제 주춧돌 다짐 '우정의 샷'

##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의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가 14일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렸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도내 주요 경제 단체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가해 강원경제인 아마추어 골퍼 최고를 가리는 동시에 교류 및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티오프 세리머니는 이희종 강원일보사장 등을 비롯해 도내 기관 및 단체장, 기업인 등이 참석해 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해발 1,100m의 대회장에서 세계경제의 격랑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며 대회를 치렀다. 특히 흐린 날씨에도 강원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라운딩에 임했다.

도골프협회 임직원들도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편의와 성공을 위해, 꼼꼼한 코스 점검과 스코어 정리 등 대회 성공의 도우미로 힘을 보탰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



◇14일 정선 하이원호텔에서 열린 2012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롱기스트 김남철씨, 준우승 윤차섭씨, 우승 정봉철씨, 3위 장정익씨, 니어리스트 김영봉씨).

정선=오윤석기자 papersuk1@

진 이번 대회에서는 70타를 기록한 정봉철 영월군건설협회장이 2010년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윤차섭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이 70.4타로 준우승을, 장정익 레미콘조합 삼척지역회장이 3위(71타)에 올랐다.

드라이버샷을 가장 멀리 보낸(245m) 롱기스트상은 김남철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이, 그린홀에 가장 가깝게 공을 올린(0.3m)

니어리스트에는 김영봉 레미콘조합 회원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이희종 강원일보사장은 "이틀 동안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든 경제자들의 꿈과 목표가 이뤄지도록 강원일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 / 이모저모 /

#### 도내 경제인 교류의 장 우뚝

◇강원경제인 골프대회에 지난 해보다 많은 130여명이 참가해 호쾌한 샷을 날리며 강원경제 활성화를 다짐. 경제인들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각자의 기업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이날만큼은 라운딩을 즐기며 기분 전환.

참가자들은 시상식과 함께 열린 오찬 자리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는 등 즐겁게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 도골프協 대회 운영 퍼펙트

◇이번 골프대회는 전날 오후부터 내린 이슬비와 짙은 안개 등으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막상 대회 당일 아침 날씨가 개어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

한편 도골프협회의 매끄러운 운영으로 도내 경제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

#### 구름 위 라운딩 장타는 '덤'

◇고원골프장의 대명사 하이원CC는 100만㎡ 규모의 광활한 초원에서 세상을 굽어보듯 라운딩을 즐기는 묘미를 만끽할 수 있어 호평. 국내 최고 높이인 해발 1,100m에 위치해 기압이 낮아 골프공이 호쾌하게 뿔어 나가면서 장타가 속출. 여섯 번째 친선 골프대회를 찾은 한 기업인은 "하이원CC는 매년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며 내년에도 다시 참가할 것을 약속.

#### 도 건설協 프로급 실력 과시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건설협회 도회와 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참가자들이 상위권을 싸붙이 해 눈길. 대회 우승을 차지한 정봉철씨와 준우승을 한 윤차섭씨가 건설협회 도회 소속이며 롱기스트상을 받은 김남철씨 역시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

특히 정봉철 영월군건설협회장은 올해 강원경제인상 특별상을 수상한데다 골프대회 최초로 2010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하는 진기록을 세워 주위의 부러움을 독차지. 레미콘조합의 경우 삼척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정익 삼척지역 회장이 3위를 차지했고, 김영봉 회원이 니어리스트를 수상해 건설협회 도회와 함께 수상을 양분.



# 삼척 근덕면에 1,500MW급 원전 4기 건설

## 지정부 예정구역 지정 고시 ... 부남리 동막리 일대 317만8,292㎡에 '대진 원자력발전소' 조성

지식경제부는 삼척시 근덕면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신규 원자력 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고시했다. ▶관련기사 3·15면

세부 자질조사, 원자로 설치 위치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대 317만8,292㎡에 는 1,500MW급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 4기 이상을 보유한 '대진 원자력발전소'를 조성한다. 영덕군 영덕읍 일대에는 324만2,332㎡에 1,5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4기 이상을 설치해 '천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 사업 예정기간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지정부 측은 "신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은 2008년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원전 적정비중 달성을 위해 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하고, 기본지원금을 비롯해 사업자 지원금, 지역개발세 납부 등 혜택을 준다. 또 한수원 지역사무소와 건설에 필요한 주거·편의시설, 식당가 등이 조성된다.

2010년 삼척, 경북 영덕·울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수원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신청했고 한수원은 부

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정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1일 제 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2차관)에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김창우기자 cwookim@

# 동부메탈 4조1천억 동해파워발전소 건설

## 2천MW급 신재생에너지 재해 대비·내진설계 안전 연 55만명 고용효과 기대

80년간 동해지역과 함께 해 온 항토기업 동부메탈이 동해시 송정동 동부메탈 동해공장 부지 내에 2,000MW 규모의 동해파워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동부메탈(대표이사:정홍용)은 14일 오후 3시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권한대행 실·국장 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송정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동부메탈은 이 자리에서 사업비 4조1,000억원을 투자해 2,000MW(1000kW급 2기)급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소수력 등 100MW급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파워발전소는 회처리장 폐수방류 비산탄진이 없는 3무(無)와 최첨단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채택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한 1소(小)의 친환경발전소로 건설된다고 강조했다. 석탄을 태우고 남는 재는 회 처리장이 없을 정도로 첨단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도입해 100% 재활용하고 옥내 저탄장과 밀폐형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 오염물질인 비산탄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폐수 재활용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폐수 방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인 위치도 고려하여 폭풍 등에 의한 해일에도 대비함과 동시에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와는 달리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 기준(리히터 규모 6.5)과

동일하게 설계해 지진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동부메탈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정부 지원금 1,610억원과 지방세 수 7,800억원 등 약 9,410억원의 재정수입 증대와 건설기간 중 연 인원 55만명의 고용 유발효과 및 상주인구 1,000여명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직원 채용 시에 현지 출신을 우대하며, 산·학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25일까지 시의회와 사회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동부의 송정2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해=박영창기자





지식경제부가 14일 발표한 대전 원자력발전소 부지인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작은 어촌마을로 해발 100m정도의 얇은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삼척/홍성배

# 삼척 원전 확정

<동막리·부남리 일원>

## ▶ 관련기사 2·3·4·9면

삼척시 근덕면 동막·부남리 일대 317만8292㎡ 부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 근덕면과 경북 영덕군 후보지에 대해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14일 자 정부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현지 지명을 따 '대전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명명된 근덕면 일원에는 앞으로 세부 지질조사와 원자로 설치 위치 판정, 환경영향평

## 지정부 '대전원전' 건설 예정구역 고시 1500MW급 가압형경수로 4기 이상 추진

가 등 남은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시설용량 1500MW급 가압형경수로 원전 4기 이상 설치가 추진된다.

사업규모와 시기 등 원전 건설의 구체적인 윤곽은 올해말로 예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원전 적정

비중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규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26%인 원전 비중(설비기준)은 오는 2030년까지 41%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척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

역개발세 납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혜택이 이어질 것 이라고 지식경제부는 덧붙였다.

삼척시는 원전 1기당 3~4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을 비롯 고용 창출과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유치와 관련해 삼척 시장 주민소환 투표 발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된 지난 2년여 동안 지역내에서 극심한 갈등 양상이 초래돼 왔기에 앞으로 찬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는 이날 "인구 3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한 반면,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예정구역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는 등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편 삼척시는 원전 건설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며,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